

# 솔로파워, 광주에 태양전지 투자

2014년 완공 예정으로 2750억원 투입 ... CIGS 박막 중심으로

미국 태양전지 생산기업이 광주에 공장을 건설한다.

광주광역시는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강운태 시장이 7월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솔로파워코리아와 CIGS(구리·인듐·갈륨·셀레늄) 박막 태양전지 공장 및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확약서(L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솔로파워코리아는 광주 월전외국인투자지역에 2억5000만달러(약 2750억원)를 투자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CIGS 태양전지 공장을 건설하며 2013년 9월 착공할 계획이다.

공장이 본격 가동하면 생산인력 278명, 연구진담인력 30명 등 3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CIGS 박막 태양전지의 기술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광주시가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행정적 서비스와 관련법규에 따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기로 솔로파워코리아와 합의했다.

강운태 시장은 “세계적 수준의 태양전지 기술력이 광주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광주가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솔로파워코리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5>